

#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신 희 선 (Shin, Hee-sun) \*

(E-mail : leader85@sookmyung.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1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22일

---

\* 학위취득대학 : 숙명여자대학교

현직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의사소통센터 교수

##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즉 남북 갈등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콘텐츠(contents)가 가능할 수 있는지,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가장 효과가 높은 통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회통일교육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은 객관적인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둘째 통일부나 통일교육원 등 정부에서 준비한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texts)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사(lecturer) 보다는 통일문제를 사고하게 하고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폭넓은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통일 미래의 구현은 대화와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마인드(mind)를 형성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가운데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사회통일교육의 지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 ] 통일문제, 갈등관리, 시민사회, 의사소통능력,  
사회통일교육

## I. 서 론

2011년은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체제의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김정일 조문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간에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 되었고, 북한은 한국정부의 조문제한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전병역 2011).<sup>1)</sup> 불안정한 남북 정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 향아리’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마인드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통일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통일정책 논의를 넘어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이상우 2011).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과연 사회통일교육은 존재했는지, 실질적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고려해볼 때 낙제 점수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특정 이슈(issue)가 불거질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공교육으로 오해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0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1003-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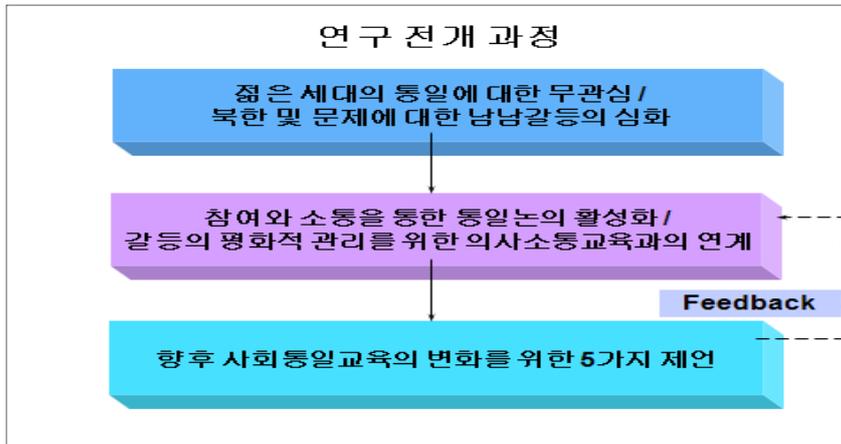
1) 북한 국방위원회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되기도 하면서 미성숙한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보여 주었다. 정권에 따라 통일교육은 일방적, 계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일면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한계로 통일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통찰력 있는 시민의식을 키워주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통일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게 한다. 통일부의 통일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한 분단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단지 1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분단의 시간이 전후 2세대를 지나가면서 통일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 자세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적인 혼란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당위론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 조건이 꺾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보다 나은 사회로서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제대로 성찰해 본 적이 없는 경우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노력과 열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사회통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신희선 2009b).

여전히 이념갈등의 구도 속에서 남남갈등이 진행되거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을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일교육이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대화와 소통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상생의 통일 한국을 꿈꾼다면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 승패의 구도를 종식하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적인 자세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

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2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회통일교육<sup>2)</sup>의 몇 가지 점들을 되짚어 보고 우리 사회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남북한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생과 공영의 통일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의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새로운 사회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통일교육은 대체로 통일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민간주도의 통일교육과 통일부 및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통일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측면으로 폭넓게 접근하였으며,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

2) 오기성, 2009, “사회통일교육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0권 1호, pp. 189-214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통일교육의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는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회통일교육 관련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및 특히 정부에서 매년 발행한 사회통일교육 책자인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와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등 관련 자료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통일부 현(전)직 자문위원들과의 면담 내용을 참조하였고, 연구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의 내용과 인터넷 리서치를 활용하였다.

## II. 현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이 2009년 일부 개정되었다. 여기에 명시된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것이다(통일교육원 2011, 11-15).

즉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에 바탕을 두어 정부의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의지를 확립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통일교육전문강사를 육성하고, 민간통일교육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내부에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몇 개의 신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일보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ARI),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실시한 ‘국민정체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9%에서 19.3%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17.4%에서 10.4%로 줄었고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중앙일보 2010.12.0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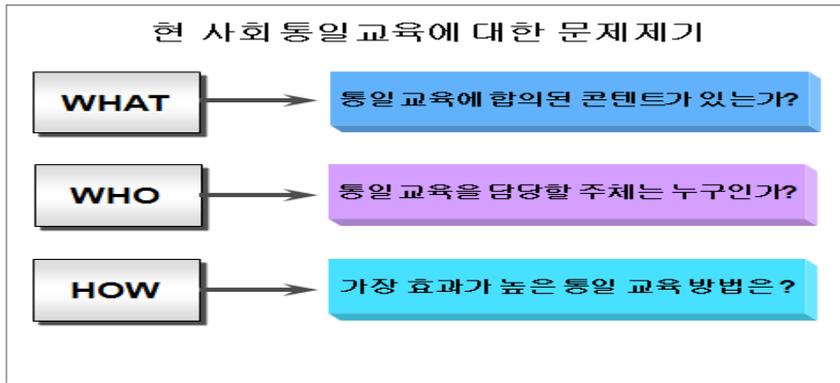
둘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통일론 재구상> 학술회의에서 ‘통일’ 보다는 ‘평화’를 더 보편적인 가치로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통일 관련 사회의식은 전환기에 있으며 기존의 통일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담론이 약해지고, 평화와 통일을 각각 구분해서 보는 등의 인식 변화를 이제 우리 사회가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인성 2010).

셋째, 통일교육원이 2011년판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면서 “국민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안보관,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의 6.25남침”을 수록하였고, “후계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3대 세습과 관련해 비판적인 서술”을 포함한 방향에서 통일교육을 강조하였다(이영중 2011).

이와 같은 논의들의 복합적인 의미는 우리 사회에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회통일교육을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통일교육에 합의된 콘텐츠(contents)가 있는가?

정부에서 바라보는 ‘사회통일교육’은 각 지역사회 및 직능단체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주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회원, 여성계, 종교계, 민간 차원의 대북인도지원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북한이탈



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NGO 대북 지원사례」,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남북경협사례와 발전방향」, 「한민족 갈등관리와 국민통합」 등 24여개의 맞춤형 교과목이 있다고 한다(통일부 2009, 201-203). 그러나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합의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영수(2011)는 “다양한 사회교육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화와 담론 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일정한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의 사회통일교육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의 양적 지표중심의 평가와 “정부 정책을 잘 홍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사회통일교육은 내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경(2010, 272-276)이 지적한 것처럼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민족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질적인 체제의 통합은 상당한 비용과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통일인식의 스펙트럼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효과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여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갈 여지가 있는지, 진보와 보수단체간에, 여야간에, 그 내부에서 존재하는 온도 차이를 좁히고 어떤 콘텐츠가 합의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인가?

통일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관련 전문가와 명망성이 있는 지역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고 통일교육원에서 ‘눈높이 통일교실 강사반’을 개설하여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혹은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강사를 위촉하여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전선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미래상에 대해 균형 잡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교육 대상에 따른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유발하는”노력이 중요하고,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각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터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과 직업, 사고와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역량은 짧은 시간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교육내용을 재충전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3. 가장 효과가 높은 통일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통일부는 IPTV, 인터넷, 시청각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기성(2011, 28)은 SNS와 같은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정서적 감동을 주는 정의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을 학습자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소망하는 마음을 기초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트위터, 페이스 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미디어는 감동 스토리에 즉각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진정성 있는 애정을 토대로 분단의 고통을 느끼는 정의적 과정의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자가 감동하는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SNS는 때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포퓰리즘적인 반응과 의견의 쏠림현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SNS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자체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접근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 것이다.

예컨대, 이상근(2011)은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에 바탕을 두어 “통일교육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체험학습이었고, 남북출입사무소, DMZ 및 GP 현장과 관문점, 대성동 마을 등을 견학했던 것이 깊이 있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인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강사위주의 교육 보다는,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는 학습의 비중을 늘려가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나열식으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보다 교육적 효과가 보다 높은 분야를 집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 III.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

#### 1. 평화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갈등은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모든 현상과 관계들 속에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장영철 2011). 사회적 갈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갈등지수<sup>3)</sup>에 있어 한국은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경기신문 2009.06.26, 사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으로 계층갈등(76.5%), 이념갈등(68.1%), 노사갈등(67.0%), 지역갈등(58.6%), 환경갈등(5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두 번째로 높은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사회갈등지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역소득불균형 정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의 평균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통일문제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집단간, 계층간, 세대간 입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고성준(2011, 92-93)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정치적 선호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그 저변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균열, 성장과 분배와 같은 경제 정책적 선호의 균열, 나아가 청년층과 장년층간의 세대 간 균열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응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북한 문제가 우리 사회 가장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해 온 만큼 한국사회의 평화적 갈등관리를 위해 항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자 상수라고 할 것이다.

갈등은 위험이자 기회가 된다. 갈등이 공동체의 선을 위한 협력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위험이다. 또한 갈등이 서로 간에 회의와 불신, 분노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여 무력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긴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우리사회의 변모의 가능성, 새로운 정체성과 합의를 모색하는 장이 된다면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경제·사회적 약자 배려(30.7%), 기회균등(22.1%), 시민의식 제고(21.3%), 법치주의 제고(18.5%), 관용의 문화(6.9%)를 지적하고 있다(박영환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관용의식을 키움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이성과 감성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폭 넓은 맥락에서 공공의 문제를 다루면서 갈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소양을 함양해 가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 의사소통역량 강화의 중요성

지식정보화시대, SNS가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충돌의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념갈등은 북한을 최대한 포용하자는 입장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퍼주기만 하는 대북정책은 문제가 있으며 안보를 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간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그들 간에 합리적인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갈등 사안이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갈등으로 변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만 할 때 의사소통과정에서의 논증 행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논증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의이기에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증행위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라는 화이트(James Crosswhite저, 오형엽 옮김 2001, 258-259)의 언급처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에 바탕을 둔 대화와 토론의 경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보다 깊은 상호이해를 도모하면서 상호간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내적문제와 외적문제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조합이 중요하다. 실제 존재하는 집단들과 개인들간의 대화, 토론, 협상의 과정은 사회적 갈등을 검토하고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갈등을 물리적 폭력이나 자의적인 권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사유로 옮겨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게 될 것이다.

하버드대학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미래마인드』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다섯 가지 마음 능력을 언급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인 ‘존중하는 마음(respectful mind)’은 개인 및 집단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말한다. 통일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며 우호적인 방식으로 다루

는 존중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사회통일교육은 지식으로서 통일관련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특징을 주입하거나 반공교육의 측면에서 반복의식을 심어주며 우리 체제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 전제가 되는 타자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적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교육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적절한 합의점을 발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 통일은 더불어 상생 공영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모색하는 경쟁사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갈등관리와 민주적으로 상대와 대화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갖춘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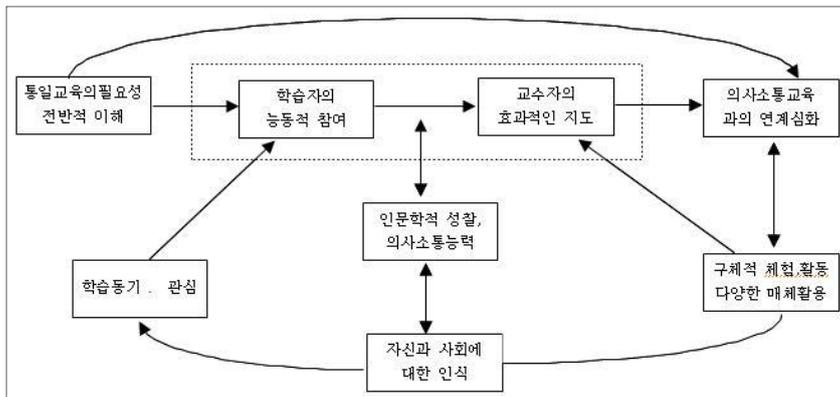
### 3. 통일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접목

일방적 입장에서 통일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상호입장들을 들어보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소통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에 대화와 토론 및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교육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분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공감과 소통의 관계를 통해 갈등 사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며,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의 많은 부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인 의미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협의적 형태의 의사소통을 훈련할 수 있는 장으로서 대화와 협상교육은 일상의 삶에서 민주적인 의식과 마인드를 키워주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교육’과 ‘의사소통교육’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학습자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학습동기와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교수자들은 의사소통교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통일교육을 구체적인 체험과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능력이 키워지며 미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 통일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관계 >



그동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거나 통일교육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의사소통교육은 주로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사고력과 언어 표현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제 두 교육 영역을 접목하여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효과적

으로 해결하는 시민적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재의 남남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운데 점차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의식을 형성해 가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 향후 사회통일교육에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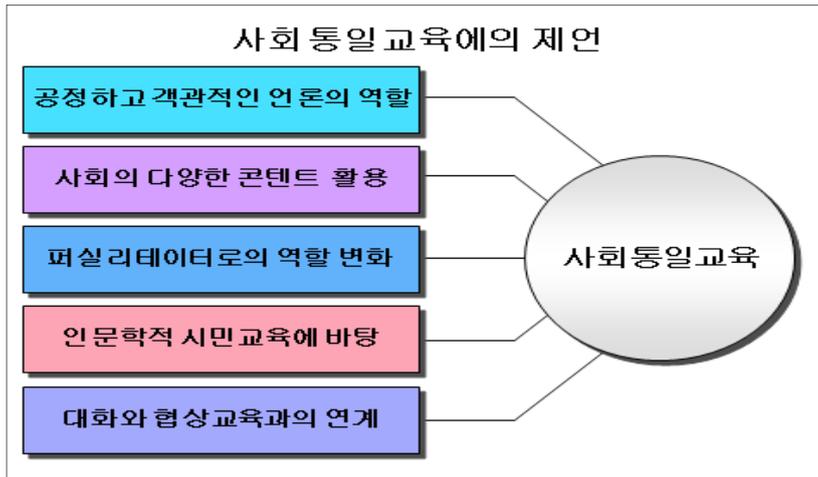
최근 들어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사회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통일교육은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교육적 효과도 또한 적을 것이다. 사회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으로 통일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숙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진지하게 통일의 문제를 성찰하며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간과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과 민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평화로운 논쟁과 갈등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가 만들어 가는 사회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역할

사회통일교육은 ‘언론’의 역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sup>4)</sup> 학교통일교육과 큰 차이가 있다면 사회통일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의 상흔으로 우리 사회는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

---

4) 줄고, 2011,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3”,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7월 6일), pp. 51-57 참조.



라 북한을 바라보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사회통일교육의 어려움은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한계는 먹고 사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받는 청중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컴에 보도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은 사회통일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의 태도가 시민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남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팩트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느냐, 또한 언론이 북한 관련 사실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믿느냐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일차적인 사회통일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대중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거나 대립 각을 세우는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서, 남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획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통해 사회통일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회의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

향후 사회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이 앞으로는 ‘관변단체가 국가지원을 받아 동원된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며 시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는 힘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관변 텍스트라는 인상을 주는 통일교육의 자료들을 넘어서서 대중문화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남북한 현실을 생각해 보고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통일관을 정립하도록 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좋은 교육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배우도록 격려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하고, 모든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 한다(Arthur J. Cropley 저 이경화 외 옮김 2004, 240-241). 이런 측면에서 분단이 가져온 비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통일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성찰하게 하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통일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일반 대중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다. 영화가 상상력

과 허구의 산물이지만, 남북한 대치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삼 인식시키고 다양한 상징을 통해 문제의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영상 자료 또한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결국 정답을 가르쳐 주려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어 통일교육 참석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일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근 개봉된 <풍산개><sup>5)</sup>나 <경계도시><sup>6)</sup>, <고지전><sup>7)</sup> 등의 대중적인 영화나 북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필름들은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탈북자 출신의 감독이 만든 <겨울나비><sup>8)</sup> 등도 북한 체제의 허구성에 대해 인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3.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의 역할 변화

사회통일교육 담당자는 강사(lecturer) 보다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교육현장은 교수 중심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정보와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습 촉진자나 코치로의 역할 변화

- 
- 5) 김기덕 기획, 전재홍 감독의 <풍산개(2011)>는 분단을 소재로 적대적인 남북한 관계를 풍자하면서도 드라마에 멜로와 스릴러, 코미디까지 담겨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서의 영화의 역할을 하는 대중적인 작품으로 상영되었다.
  - 6) 홍형숙 다큐멘터리 감독이 오랜 시간을 두고 연속해서 찍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남북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기록한 <경계도시(2002)>, <경계도시 2(2010)>는 권해효, 박원순, 우석훈, 김이환 등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가 서포터로 나선 영화다.
  - 7) 장훈 감독의 <고지전(2011)>은 1953년 2월, 휴전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교착전이 한창인 동부전선 최전방 애록고지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분단과 이데올로기, 그 가운데에서의 삶의 실존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영화다.
  - 8) 탈북자인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2011)>는 식량난으로 아사하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로서 북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한다.

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도 참여자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자극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교육 참여자들이 관련 지식들을 단순히 듣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달능력이 탁월한 강사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고 나아가 반복적인 내용으로 여겨져 지루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 역시 참여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대상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 전반의 실상이나 급변하는 시사적 쟁점에 대한 이해,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인물 등에 대한 정확한 북한 실상이나,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 정부의 구체적인 통일방안 등과 관련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각 대상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맞춤형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에 강연이나 강의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청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일의 문제에 대한 생각의 물꼬를 터주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워크숍 형태가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쌍방향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보다 적합하다.

#### 4. 인문학적 시민교육에 바탕

사회통일교육은 민주주의적 가치의식을 키워주는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 문제에 협소하게 천착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들과 연관지어 교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책임, 권리, 인권, 정의, 다문화 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줌으로써 타자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키우며 정치적 관용의 자세를 함양하는 가운데 통일문제로 시각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통일이 정치인들이나 이산가족들의 관심사이자, 실질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현실에서, 혹은 통일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실제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속으로 통일교육이 들어가야 한다. 통일교육이 주로 남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안보교육, 반공교육의 측면으로 경도되어 대북적대감을 고취시키거나 감상적으로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도록 정치적, 정권적 차원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세계를 넘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최근 인문학적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이를 통일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이른 바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인문학’<sup>9)</sup>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마인드를 확산하는 가운데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성의 형성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설명, 분석, 평가, 옹호의 능력을 함양하는”(심연수 2010) 것이기에 통일문제에 대한 관

9)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대학 수준의 클레멘트 코스를 만든 얼 쇼리스(Earl Shorris) 처럼 노숙자, 빈민, 죄수 등 최하층 빈민들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존감을 얻어 스스로 사회의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인문학 교육의 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얼 쇼리스 저, 고병현, 이병곤, 임정아 역, 2006,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통일교육의 특성상 시민들의 관심과 필요를 고려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이 진행되려면 학력, 직업, 연령, 성별 등 대상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한 차별화된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딱딱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생활실천의 측면과 연결고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남지역통일센터의 경험처럼 이미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교육, 무료 법률지원 및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통일교육의 일환이다. 멘토링을 통한 통일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장점인 다양성과 민주성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북한 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함의를 가짐과 동시에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5. 대화와 협상교육과의 연계

사회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의사소통교육과 접목되어야 한다. 상생과 공영의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특히 대화와 협상과 같은 협의적 능력을 키우는 의사소통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를 줄이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화적 노력은 중요하다. 즉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당면 문제를 조정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을 얻으려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대화와 협상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하

는 것은 통일 준비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기초로서 의사소통능력의 훈련과 개발은 주체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능력, 공적 인간으로 사유하고 행위 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상이한 주장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따질 수 있는 능력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타자와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배양하며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길을 만들 것이다.

피터 버거와 안톤 지더벨트(Peter L. Berger, Anton C. Zijderveld)는 “평화로운 논쟁과 갈등해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민사회의 제도들을 개발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Peter L. Berger and Anton C. Zijderveld 저 함규진 역 2011, 177).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제도화되는 것과 함께 각 개인과 집단이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에 대해 불편함 없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형성은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누는 소통과정에서 양보와 타협, 수용의 자세를 익히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교육은 민주주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과 접목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올바른 통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방향을 제기할 것이다.

## V. 결론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유러피언 드림』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 보다는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 보다는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개발을, 무자비한 노력보다는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활동들을, 재산권 보다는 보편적인 인권과 자연의 권

리를, 일방적 무역 행사 보다는 다원적 협력”이 구현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Jeremy Rifkin 저 이원기 옮김 2009, 12). 무한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모색하는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각자 책임감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상생과 공영의 통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사회적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목소리가 부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의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주제,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통일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콘텐츠가 가능할 수 있는지,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또한 가장 효과가 높은 통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일교육에서 의사소통교육과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 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사회의 가치들을 구현해 가는 사회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11, 227-228). 이는 타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화적 자세를 키워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민주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극단적인 남남갈등, 남북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며, 남남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작업이 통일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의 진원이었던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된 인식과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교육받은 사람을 많이 배출하는 ‘양’적 팽창은 가져왔지만, 그동안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과 같은 성숙한 자세를 키워주는 ‘질’적 측면에는 소홀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통일문제에 대해 과잉 의식화되어 갈등과 분열의 결과만을 초래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화와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은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아가 타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가치를 적극 포괄해 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21세기 통일 한국을 구현하기 위해 의사소통교육에 기반을 둔 사회통일교육 과정의 개발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고성준, 2011,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곽노성, 2000, “한국 협상학 교육의 현재 : 현황 평가와 미래 발전 방향”, 『협상연구』, 제6집 1호 pp. 143-154.
- 김문수, 2008, “협상의 의사소통”, 국립국어원·MBC 방송 언어 공동 연구발표회(서울, 12월 19일).
- 김영수, 2011, “사회통일교육 참여 주체의 역할과 활동 제고 방안”,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서울, 7월 6일), pp. 1-19.
- 로저 피셔(Roger Fisher)·윌리엄 유리(William Ury)·브루스 패튼(Bruce Patton) 저, 박영환 옮김, 2006, 『YES를 이끌어 내는 협상법』, 서울: 장락.
- 리처드 셸(Richard Shell) 저, 박현준 옮김, 2006, 『협상의 전략』, 서울: 김영사.
- 매튜 맥케이(Matthew McKay)·마르타 다비스(Martha Davis)·패트릭 패닝 (Patrick Fanning) 저, 임철일·최정임 옮김, 1999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맥키치(McKeachie Wilbert J.), 김종복·안병규·이병민·이남근 옮김, 200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대학교수들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한국문화사.
- 모토히사 가네코(Motohisa Kaneko), 김미란 옮김, 2008, 『대학의 교육력-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 박규철·김은중·김혜련·최양석·김덕천, 2008, 『그리스 로마 사회의 갈등해소 모델연구 - 설득과 수사학을 중심으로』, 서울 : 동과서.
- 박영환, 2010, “국민들 ‘계층갈등 해결 가장 시급’”, 『경향신문』 (2월 24일).

- 신희선, 2009a,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개발”, 『사  
고와 표현』, 제2집 1호, pp. 111-153.
- \_\_\_\_\_, 2009b, “소통과 참여를 지향하는 대학생 통일교육”, 『통일  
칼럼』, 55호.
- \_\_\_\_\_, 2011, “사회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3”, 통  
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서울, 7월 6일).
- 심연수, 2010,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인문사회  
과학연구』, 27집, pp. 5-27.
- 아더 크로플리(Arthur J. Cropley) 저, 이경화·최병연·박숙희  
옮김, 2004, 『창의성 계발과 교육』, 서울: 학지사.
- 얼쇼리스(Earl Shorris) 저, 고병헌·이병곤·임정아 옮김, 2006,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 오관석, 2009,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 관  
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집, pp. 69-107.
- 오기성, 2011, “뉴 미디어 시대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향”, 『통일  
한국』, 12월호, p. 28.
- \_\_\_\_\_, 2009, “사회통일교육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0권 1호, pp. 189-214.
- 오일환, 2006, “지역 통일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정책과학  
연구』, 제 16권 1호 pp. 31-55.
- 우평균, 2009,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평화학 연구』, 제10권 1호, pp.  
143-164.
- 워렌 슈미트(Warren H. Schmidt) 저, 이상욱 옮김, 2001, 『갈등을  
창조적으로 푸는 협상의 기술』, 서울: 21세기 북스.
- 이미경, 2010, “국민 공감대 형성의 통일교육 활성화모색” 『원  
칙과 유연성의 조화』, 서울: 통일부. pp.272-276
- 이상근, 2011, “사회통일교육의 사례와 개선방향”, 통일 미  
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서울, 7월 6일)

pp. 21-42.

- 이상우, 2011, “개회사”, 2011 제2차 통일교육위원 그랜드 포럼 (서울, 11월 3일).
- 이영중, 2011, “통일교육, 물러서지 않은 현인택”, 『중앙일보』 (6월 28일).
- 장영철, 2011, “우리는 무엇으로 결정 하는가”, 『서울신문』 (5월 2일).
- 전병역, 2011, “북한, MB실명거론 ”영원히 상종 않을 것”, 『경향신문』 (12월 31일); 2.
- 정현숙, 2002,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찰해 본 한국적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과 문제점 : 사회구성주의모형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호, pp. 252-275.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저, 이원기 옮김, 2009, 『유러피언 드림』, 서울: 민음사.
- 제임스 크로스화이트(James Crosswhite) 지음, 오형엽 옮김, 2001, 『이성의 수사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천인성, 2010, “‘한반도 통일론 재구상’ 학술회의”, 『중앙일보』 (9월 14일).
- 톰슨 리(Thompson Leigh L.), 김성환·김중근·홍석우 옮김, 2005, 『지성과 감성의 협상 기술』, 서울: 한울아카데미.
- 통일교육원, 2011, 『2011 일반용통일교육지침서』, 서울:통일부 \_\_\_\_\_, 2011,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 피터 버거(Peter L. Berger)·안톤 지더벨트(Anton C. Zijderveld)지음, 함규진 옮김, 2011, 『의심에 대한 옹호』, 서울: 산 책자.
-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저, 김한영 옮김, 2008, 『미래마인드』 서울: 재인.
- “2010 한국인 그들은 - ARI, EAI, 중앙일보 ‘국민정체성’ 조사”, 『중앙일보』 (12월 04일); 8.

- “2010 한국의 갈등지수를 아시나요?”, 『경기신문』 (6월 26일).
- Brett, J. M., 2001, *Negotiating Globally : How to Negotiate Deals, Resolve Dispute, and Make Decisions across Cultural Bounda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nger Jay A., 2008, "The Necessary Art of Persuasion", *Harvard Business Review on The Persuasive Leader*, Harvard Business Press.

# Critical Thinking and Sugges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Society

Shin, Hee-s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forms a preliminary study addressing how best to approach un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peacefully manage South Korean society's internal conflicts related to inter-Korean issues and to allow a more united future of Korea to develop. In other words, in the context of internal conflic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paper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unification education, including whether concerted contents of this can be made, which party should be responsible for it, and wha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argues that strengthening democratic communication 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peaceful conflict management in South Korean society,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communication education with unification educa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as to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civil society: first, and most crucially, the neutral media's role in unification education, second, utilization of various texts in society as well as material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the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unification education a facilitator's role is to lead discussion and thinking on the issue, which can be more effective than a lecturer's one-way communicative mode.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be approached within an extensive "civic education" program, and at the same time,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ited future of Korea has to be based on a win-win approach and a perspective focusing on co-prosperity, which can be formed by communication education that addresses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That is, within the goal of expanding civil society's democratic mindse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lies in providing opportunity to think about division and unification issues within Korea.

**Keywords** : Unification Issue, Conflict Management,  
Civil Society, Communication Ability,  
Unification Education by Society